청년리더들과 ESG 가치 실현 앞장

전주시, 지역 6개 대학 총학생회 임원진과 간담회… 추진사업 발굴 · 대학생 정책추진단 운영 등 논의

전주지역 청년리더들이 의사결정 시 환경과 사회책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ESG(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가치 실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전주시는 23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세미나실에서 전북대, 전주대, 전주교대, 예수대, 전주비전대, 전주기전대 등 전주지역 6개 대학 총학생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별 총학생회 임원 구성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시는 그간 추진해온 대학들과의 협력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ESG 추진사업 발굴 및 대학생 정책추진단 운영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시와 6개 대학 총학생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E(환경) 분야에서 △교내 나무심기 △학내 카페 공유 텀블러 사용 등을 실시하고, S(지역사회) 분야에서 △농촌 봉사활동 △2차 헌혈 캠페인 등 각종 ESG 단위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전주시 대학 2050 탄소중립 실천 선언식에 이어 2050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대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는 향후 대학 총학생회와 함께 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생 정책추진단(가칭)'도 구성할 예정이다.

황권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시는 총학생회와의 안정된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전주시와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미래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전주시 청년리더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청소년 삶 전환점 되는 전주형 전환교육 '야호전환학교'

"해야 할 일이 아닌, 하고 싶은 것을 찾는다"

교육의 위기론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욱 급격한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다. 공공성과 보편성, 시민성을 잃고 획일화, 계급화의 수단이 돼버린 공교육의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은 교육시스템의 생태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세계화'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삶 속에서 '앎'과 '함'과 '삶'을 일치시켜나가기 위한 것이다. 전주시는 야호학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야호전환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삶의 전환점이 되는 교육 혁신의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다.

△"즐거운 학교에 가고 싶어요" 새로운 학교를 꿈꾸다!

우리나라의 학교에는 웃음소리가 없다. 근대교육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학교는 성적 지향적인 교육목표만을 향해 질주하면서,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스펙'과 학벌을 준비하기 위한 도구적 교육으로 매몰되고 있다. 오직 대학 입시를 위한 최고의 성적과 진로교육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 지역의 경우,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 조사한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전라북도의 만족도가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2016년부터 전국 중학교로 확대된 자유 학년제는 학업 스트레스 저하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학업 부진 등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이렇게 공공성과 보편성, 시민성을 잃어가고 있는 공 · 사립학교에 대한 대안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대안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2013년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가 공공 교육에 도입되었고, 2015년부터는 기존의 학제에서 벗어난 전환학교가 설립되거나 준비 중에 있다.

전환학교(교육)는 기존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이루며, 적극적 의미의 생태교육,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교육, 생태적 인간을 기르는 교육을 추구한다. 아울러 삶의 주체적 전환을 도모하고 생태적 관계성을 회복하는 교육을 일컫는다. 무엇보다 전환학교의 등장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배경으로 작용한다.

전주시는 '학생도 시민'이라는 대명제 속에 야호 6대 정책 및 근본적 교육 생태를 바꾸는 전환교육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교육 거버넌스의 훌륭한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야호학교, 아이들이 활짝 웃는 '진짜' 학교

전주시는 교육복지에 대한 책임감과 아동 · 청소년의 성장과 행복이 지역의 미래라는 믿음으로, 2015년부터 교육전문가 간담회, 창의교육 모델 발굴 협의회, 전주시 인성 · 창의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돌봄 및 교육정책으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났다. 또한 전주형 아동 · 청소년 정책 '야호 프로젝트',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인 '야호학교' 등 전주형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청소년들이 전주에서 진로를 찾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야호학교 개관식 모습.

특히 전주시 야호학교는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의 거점 공간으로 도약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청소년 자치프로젝트'를 통해 110명의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기획, 실행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전주사람 프로젝트'에 총 31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전주의 정신과 문화를 배경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지역 자긍심과 자기주도력을 높였다.

이외에도 야호학교는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 청소년운영위원회(빛솔) 모집, 청소년동아리 운영, 전환교육 활동가 양성 등 전주형 전환학교의 기틀을 마련해왔다.

△청소년의 삶을 바꾸는 교육 혁신, 야호전환학교!

전주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전주형 전환교육 '야호전환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야호전환학교'는 삶의 전환기(17~19세)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인 활동과 창의적이며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1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전주시 직영 미인가 대안학교다.

야호전환학교는 1년 과정(2022.3.~2023.2.)의 전일제(주 5일) 형태로 운영되며, 교육과정은 △개별프로젝트(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 - 자기주도학습, 운동, 개별탐구, 인턴십 등 △공동프로젝트(팀원들과 협력하여 기획하고 실행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 - 예술감성, 맘대로 등 △야호프로젝트(전환교육의 의미를 경험하는 야호전환학교 필수 과정) - 인문사회, 여행, 생활자립, 동아리 등이며, 모든 수업은 선호도 조사를 통한 주제 선정부터 수업의 기획, 운영, 평가까지 청소년들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집대상은 전주지역 17~19세 청소년 20명이며, 3월 18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는다. 이후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논의

상반기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온라인 회의 진행

전주시가 올해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기관 등과 함께 손을 맞잡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망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가 23일 전주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관련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2022년 상반기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를 비대면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자문과 의견 교환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매년 상 · 하반기에 각각 1회씩 열리고 있다.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현순 위원장(전주YWCA)을 신규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또 올해 신규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사업 △꿈드림 축제 △민주시민유권자교육 △전주시 비인가 대안학교 급식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청소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혜선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 중 진로를 못 정한 청소년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급식지원사업을 안정화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는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 또는 전화(063-227-1005)로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설공단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편의 차량을 지원한다.

거동 불편 선거인 위한 대선 투표 편의 차량 지원

전주시설공단, 사전투표 · 선거 당일 투표소까지 왕복운행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편의 차량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다음 달 4일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4대의 차량을 지원해 사전투표를 도울 예정이다.

또 다음 달 9일 선거 당일에는 총 8대의 차량을 현장에 투입해 선거인의 집에서 투표소까지 왕복운행을 지원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모두 대상에 해당된다.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면 이용료는 무료다.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지콜(063-271-2727)로 연락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들이 이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